



농민의 자리에서 본다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의 출범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돼지콜레라를 앞으로 1년반(2000년 9. 30) 후에는 우리 나라도 청정국가가 되기 위해 양돈협회는 물론, 관련업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 2000년 말 이전에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도 이때까지 청정화 하지 못하면 대일 돼지고기 수출의 길이 막히게 된다.

돼지고기 수출은 국내 양돈산업의 질적 발전은 물론, 돼지 가격 유지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처럼 안심, 등심만 수출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 생산을 줄이면 되지만, 이제는 수입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돼지고기 생산의 절반이 전·후지로 그동안 국내에서 전지, 후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돼지값 상승에 울무가 되어 왔는데, 후지의 수출로 전·후지 가격이 올라 그동안 돼지 가격이 안정 상승세를 누려 올 수 있었다.

만에 하나 수출이 중단된다면 전·후지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이고, 그 외 삼겹살, 목살 등은 수입 때문에 값을 올려 받을 수 없게 되어 일반적으로 돼지 한 마리당 약 3만원 정도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생산비 이

하로 내려간 돼지 가격을 견디어 낼 수 없어 양돈산업은 무너져 내려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돼지콜레라 박멸은 긴급한 것이고 꼭 이루어야 할 절대절명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 양돈산업은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종돈도 수입 의존 비중이 크고, 동물약품·기자재 등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오면서도 대일 수출을 통해 국내 비인기 부위를 수출하여 양돈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물론, 일본 수입량의 절반을 수출하던 대만 양돈산업이 구제역이란 질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그 영향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많은 견제도 뒤따르게 된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의 경쟁은 자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양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이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국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시키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우리도 청정화 해야 할 것이고, 둘째 일본 정부의 수출국들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는 문제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가 소정의 역할을 하려면 모든 양돈농가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한 두 사람의 불참은 큰 둑이 구멍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인데, 우리가 상당량을 대만 등을 통해 우회수출을 하고 있어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현재의 냉동육 위주의 수출에서 냉장육 위주의 수출로 품질을 높여 제 값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미국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출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이 이미 없어졌고, 앞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 방법도 국제 규범에 맞도록 충분한 연구를 통해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짧은 기간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양돈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혼자 열심히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지금까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가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구가 소정의 역할을 하려면 모든 양돈농가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한 두 사람의 불참은 큰 둑이 구멍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둘째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규모에 따라 공평하게 필요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배합사료에 약 0.5%에 해당하는 자조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

법이다.

이는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동참 의사가 결집되어야 하고 사료업체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세계상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 주고, 앞으로는 이러한 자조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축산업 자조금법 등을 만들어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제도화 되면 우수 인력을 영입해서 업계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의 출범은 우리 나라에서도 생산자들이 단결하여 관련업계와 협력하여 스스로 산업 발전을 위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구경꾼이 없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번 일본의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 부터의 수입금지를 위한 정책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었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양돈산업이 이번 일을 성공시키면 이것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오제스키병 등 단계적으로 질병 퇴치를 해나갈 수 있고 업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 나라 축산업이, 농업이 농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본보기가 되어 양돈농가들은 한국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양돈**